

설악산 파수꾼 박 그림 氏



(설악산지부사무국장)

「설악산 지킴이」 박그림씨(49. 설악녹색연합대표). 그는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삶의 터전을 설악산 기슭으로 옮겼다. 박씨가 설악산과 인연을 맺은 것은 고교 재학시절. 산이 좋아 산악회활동을 하면서 처음 설악산을 찾은 때가 60년대말이었다.

설악산의 아름다움은 박씨에게 감동 그 자체였다. 설악산을 찾을 때마다 그는 삶의 풍요로움을 느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설악산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결혼생활 13년만인 93년, 부인 金순희씨(46)와 아들 동민(중3) 딸 동호(초등6)는 남편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설악산 입구인 속초시 설악동 348의 35호로 이사했다. 그해 결혼한 막내동생이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박씨일가족의 설악산행이 가능했다. 물론 별이가 괜찮았던 의료자재 제조판매업도 그만뒀다.

설악산에는 연간 3백60여만명의 등산객들이 찾아온다. 하루 1만명이 설악산을 찾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가운데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에만 40여만명이 오른다.

박씨가 설악산 곳곳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고 파괴되는 현장을 점검하려면 하루해가 모자란다. 그래서 그는 직업을 갖은 것을 포기했다. 국립공원내 매점에 재생공책과 재생비누, 설악산 가이드책과 엽서등 「환경상품」을 공급하는 일을 하지만 신통치않다. 그러나 그는 「경제적으로 불편할 뿐이지 정신적으로는 한없이 풍요롭다」며 대수



설악산 공룡능선

롭지 않게 말했다.

설악산으로 이사온 날부터 TV도 치워버렸다. 가족들과의 대화시간을 늘리고 책 볼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기적인 인간사회를 떠나 베풀기만 하는 설악산 품속에서 살면서 그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동민의 진로를 생각했다. 자연에 대한 고마움과 작은 뜻이라도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들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다.

동민이는 결국 충남 홍성에 있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 진학하기로 했다. 「자연을 사랑하는 평민」을 교육이념으로 50여년전 설립된 이 학교에서는 자신이 먹을 것을 스스로 지어먹어야 한다. 입학생 25명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직접 지으며 공부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가족토론 끝에 동민이도 입시지옥보다는 풀무학교의 열린교육, 전인교육이념에 공감했다.

박씨는 올해로 5주년을 맞은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모임」의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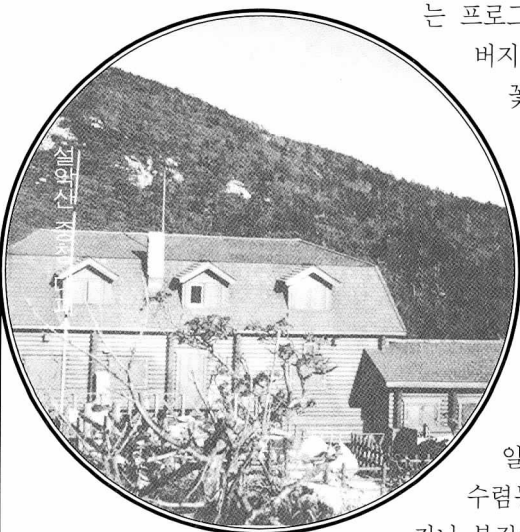
이들은 「아버지가 쓰고 그린 그림책」이라는 출판물을 기획하면서 강우현씨등과 만났다. 박씨는 「반쪽만 비추는 거울」을 펴냈고 이때 출간에 참여한 10여명의 아버지들이 그냥 헤어지지 말고 모임을 계속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 「아버지의모임」

이다.

朴씨는 11월 16일 5주년행사때 아버지모임에 설악산을 접목시켰다. 「설악산을 지키는 좋은 아버지 모임」을 제안하고 발족시킨 것이다. 설악산 아버지 모임을 통해 설악산이라는 자연환경과 함께 하는 가정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아

버지와 자녀들이 손을 잡고 금강초롱꽃을 감상하며 설악산을 등반하는 가정이라면 가족간의 대화는 물론이고 설악산에 대한 보호운동은 저절로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한 「설악산 자연학교」는 이같은 생각을 구체화시킨 첫 걸음이다. 중학생들을 모집해서 2박3일간 설악산 생태기행을 시도했다. 수렴동대피소에서 1박하고 구곡담을 지나 봉정암을 오른 뒤 대청산장에서 이틀



째 밤을 보내고 설악동으로 내려오는 산행이었다.

단순한 극기훈련 차원의 산행이 아니었다. 산들꽃을 조사하고 환경파괴 현장들을 답사했다.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투기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계곡물을 원천적으로 오염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도 직접 보도록 했다. 대청봉에서는 설악산을 중심을 남북으로 이어지는 우리 국토의 큰 줄기인 백두대간의 개념도 설명했다.

설악산의 눈이 녹기 시작하면 朴씨의 발길이 바빠진다. 약초를 얻으려는 주민들이 마구잡이로 나무를 베어내기 때문이다. 잎을 달여 먹으면 간에 좋다는 소문에 지구자나무가 잘려나가고 신경통에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마가목들을 눈에 뜨이는 대로 베어가 버린다. 또 개두릅나무이 인기를 끌자 엄나무를통째로 베어내 잎을 따는 만행이 곳곳에서 저질러진다. 한약재로 쓰이는 만병초도 싹쓸이의 대상이 된다. 나물이나 약재로 필요하면 일단 따가면 될 터인데 아예 아름드리나무를 베어낸 뒤 한꺼번에 잎을 따는데에 어이가 없다며 朴씨는 혀를 찬

다.

등산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그는 눈코 뜰새없이 바빠진다. 등산객들의 발길로 자꾸 넓혀지는 등산로는 설악산의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마구 버려지는 오물과 쓰레기로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설악산 정상부근의 봉정암에는 정화시설이 전혀 없는 곳인데도 하룻밤에 2천여명씩 먹고 자는 바람에 오폐수가 고스란히 계곡에 버려진다. 가장 깨끗할 것으로 여겨지는 구곡담 계곡물이 2급수로 떨어진 것도 이때문이라고 한다.

밀려오는 등산객들을 핑계로 늘어나는 것은 산장이다. 양쪽, 비선대등을 비롯해 모두 7개의 산장이 설악산에 들어섰다.朴씨는 이 가운데 산 정상에 올라선 대청, 소청, 희운 각 대피소는 철거돼야 할 산장이라고 꼽는다. 산장이 있음으로 해서 하루 평균 1만명에 달하는 등산객들의 산행코스를 흡인하기 때문이다. 산장이 있으니 한번 가보자는 산행계획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수용능력보다는 터무니없이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을 거치도록 만든다.

그 결과 긴급대피와 조난자 구조라는 명분으로 지어진 산장이 정상과 능선을 파괴하고 계곡의 최상류를 원천적으로 오염시키는 기지가 된 것이다.

겨울이 와도 그는 한가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 눈밭에서 희생되는 희귀 야생 조수들을 보호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소위 「주문밀렵형태」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밀렵꾼들의 활동이 본격화하는 계절이다. 회원 20여명과 함께 밀렵꾼 감시에 나서고 는 있으나 역부족이다.

지역주민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알아낸 밀렵꾼들을 찾아가 설득하는 일도 설악산 야생조수들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병들어가는 설악산을 살려내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자태를 간직한 것 같지만 속살은 이미 썩었습니다. 설악산을 한번이라도 다녀갔던 아름다운 기억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설악산 살리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朴씨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엄청난 사찰림을 보유한 신홍사측이 입장료와 관광수입만 챙길 것이 아니라 「입산예약제」 도입 등을 통해 설악산이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의 수용인원만 받아들일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처방을 제시했다.

1996년 12월 3일 일자 문화일보